글. 조영우(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장) 사진. 박관호(STOP TB 운동본부)

마음을 치유하고 결핵을 이해하다

2012대한민국 청소년 르포 트레킹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몸이나 마음의 치유를 뜻하는 '힐링(healing)'이 대세입니다. 그만큼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까요? 어쩌면 내 상처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혼자 끙끙 앓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호응을 얻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아픔이 많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야기되는 학업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가정문제, 학교문제 그리고 친구문제까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기를, 그리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런 와중에 지난해 말부터 '학교폭력'문제가 새삼 사회 화두가 되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때문이다", "교사의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애들의 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등등 사회 각계에서 다양하게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범 정부차원의 근절 대책회의까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책마련에 '학생'은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당사자이고 가장 먼저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학생들이 문제해결에서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의 1인시위도 진행했고 여러 방송매체에 출연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사실 주변 친구들의 아픔이나 고통, 어려움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나서서 해결해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진 탓일까요? 왠지 선뜻 나서기가 무안합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콘서트를 통해 비전을 갖고 자기성찰을 하며 트레킹캠프로 심신을 단련하는 청소년 걷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지리산 둘레길로 '2012대한민국 청소년 르포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들 처음 만나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강사 멘토님들께서 열심히 분위기를 띄워주시는 가운데 버스는 쉼 없이 달려 전라북도 남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인월센터에는 대한결핵협회 이형기 전북지사장님이 미리 도착해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4시간 가까이 걸어
인근 뱀사골 계곡에 들어가
즐거운 물놀이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첫째 날에는 송기역 르포작가님과 함께 '타인을 쓰다'를 주제로 인터뷰와 관련된 인문학 글쓰기를 진행했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송기역 작가님께서는 직접 둘레길 3코스를 함께 걷기도 하셨는데요,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힘든 줄도 모르고 마냥 즐거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둘째 날, 김용택 시인과 노경실 동화작가의 인문학 강연이 이어지고 우리는 다시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 똑같은 길을 돌고 돌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차! 진짜로 우리는 똑같은 코스를 한 바퀴 돌아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거나 온갖 투정을 부릴 줄 알았지만 '데자뷰'야 '그럴 수도 있

지'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선두에 서서 묵묵히 걸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첫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부끄러움을 타던 학생들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캠프에는 대한결핵협회 이형기 전북지사장님과 STOP-TB운동본부 박관호 대리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길을 걸으며 짤막하게나마 결핵에 대해 이해를 돕고 예방을 도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결핵만 주구장창 이야기했냐고요? 아닙니다. 지사장님은 직접 트레킹 그룹의 선대에 서서 학생들을 인솔하셨고, 박관호 대리님은 다른 참가자들의 멘토가 되어 옆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로 친해지고 결핵을 이야기하니 이해력과 관심도는 확실히 높아지더군요.

4시간 가까이 걸어 인근 뱀사골 계곡에 들어가 즐거운 물놀이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STOP-TB운동본부 박관호 대리님도, 전북지사장님도 가차 없이 물에 "풍덩~" 함께해서 더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형기 전북지사장님의 강연을 들으며 결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핵은 어떤 병이고 왜 위험한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는데요, 결핵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무서운 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우리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만들 수 있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죠. 우리는 차에서 내려 참가자 한 명 한 명을 꼭 안아주며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안녕을 고하고 버스에 다시 탔을 때, 왜 그리 눈물이 쏟아지던지.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도 뭔가 큰 전율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소년 르포 트레킹은 우리들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결핵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숨 막히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느낀 여유와 마음의 안정은 그 경쟁 속에서 더 뜨거운 열기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